

사·부·대·중

거꾸로 달리는 열차



노귀남 협성대 감사·국문학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환영 나온 시민 단체 여성 회원을 때리고 있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소위 남북 문제를 논의할 때 불거지는 '남남 갈등'의 표본 한 장, '폭력'을 앞에 놓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 북한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내내 가슴에 박혀 응어리가 되는 듯 했다. 둘 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 현실이며, 일어나는 아픔과 갈등은 우리가 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 듣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다르면 왜 다른지, 서로 물어볼 수 있다. 6.25전쟁이 남긴 죽음의 원인이 쉽게 가설 수 없지만,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앞을 보아야 할 것은 당연하다. 또한 남북 잡힌 일이 무엇인지도 살펴야 할 수 있다.

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아상에 사로잡힌 마음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야 서로의 아픔이 보인다.

언젠가 경부선을 탔는데, 끝 번호 좌석이 라는 출입문 바로 옆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여러줄의 열차 사람들이 모두 거꾸로 앉아 있던 것이다. 열차가 거꾸로 달릴 리는 만무하고... 한 순간이었지만, 내 좌석이 돌

이처럼 나는 알게 모르게 내 생애에 사로잡힌 '아상(妄相)' 속에 살고 있다. 이 점을 알아차리면 우리 일상에서 서로 미워함이 일어나고 마침내 어떻게 폭력이 벌어지는가를 반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일을 하면서 의견이 맞지 않아 동료에게 내 주장을 말한 것이 마음의 상처를 주었음을 뒤늦게 알았다. 강한 주장이 폭력이 된 셈이다. 이 점을 살피지 못하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고 만다.

8.15 남북공동행사에 참가했다 귀국한 평양방문단을 두고, 환영과 규탄이 엇갈린 가운데 한 참전단체

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군 검찰이 황 모 대령의 무고에 따른 군 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계과 추적과 가택 수색, 위증 강요 등 감압적인 짜맞추기식 수사로 공소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생각한다. 대법원이 고등군사법원의 판결문만을 보고 뇌물수수와 관련한 나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목탁소리

김중근 (취재2부 기자)

한글대장경 완간 이후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풍전동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고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팔만대장경을 완성했다. 그리고 700여년이 지난 지금, 318권의 우리 팔만대장경으로 다시 태어났다. 1964년 7월 21일 초대 동국대총장인 윤하 스님을 비롯하여 청담·영암·자은·석주 스님 등 교계의 대덕 스님들이 발원해 첫걸음을 내디딘 지 37년 만이다.

5월 열린 회향법회는 37년간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에 보기 드물게 많은 불자들이 장충체육관 특별법회장을 가득 메운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한글대장경에 얼마나 많은 인원과 원고가 소요됐는지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더 쉽게 다가올 것이다. 역경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고지 1,081,200매, 번역인원 43,248명, 교정인원 75,048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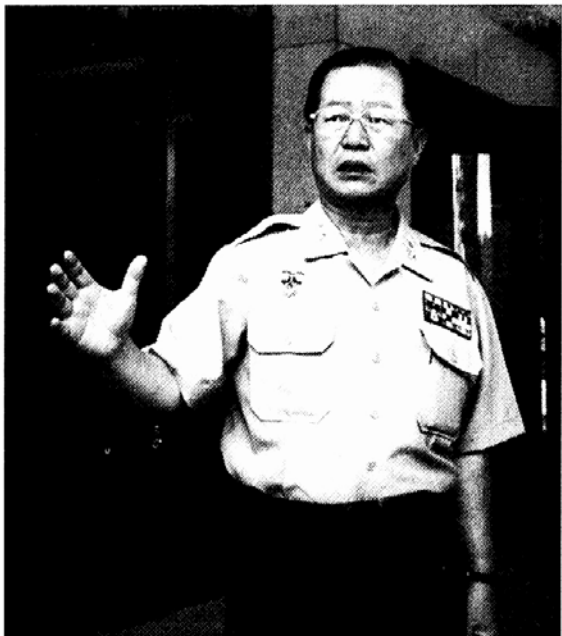
한글대장경 완간 이후

고려대장경에 담긴 1,550여종의 경전과 신라시대에서 근세에 이르는 한국 고승의 주요 저서 및 필리 경전을 우리 글로 옮기는데 상상을 뛰어넘는 노력을 들였던 것이다. 완역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후원회원과 불자들도 상당수다. 하지만 한글대장경의 완간은 또 다른 출발이다. 동국대경원은 앞으로 10년동안 인터넷 서비스와 CD-ROM을 제작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부처님을 만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국대경원은 한글대장경에 대한 개역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전산화의 기본 텍스트로 이용할 새로운 편제의 한글대장경도 만들기 위해 연구중이다.

그렇다면 불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선 한글화된 장경부터 읽어 나가자. 그러한 읽기가 전제되어야만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공간에서도 부처님이 살아남을 수 있다.

“불교계에 감사...더 열심히 실행”

대법원서 무죄판결 김태복 소장



4일 대법원 1호법정에서 선고공판을 마친후 소감을 밝히는 김태복 소장.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소감은. "30여년 군생활에 대한 개인의 명예와 불교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1차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101여단장 시절 1,000여명의 신도가 법당도 없이 실행하는 걸 보고 여법하게 법당을 지으려 최선을 다했으나 군검찰이 보시금을 뇌물로 간주해 나를 부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 이 때문에 많은 신도와 시주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신도들의 탄원서와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처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여성 열심히 실행을 펼치겠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결백이 완전히 입증되지 못해 유감이지만, 개인과 불교의 명예

“복직 등 명예회복 추진” “군 종교자유위해 노력”

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군 검찰이 황 모 대령의 무고에 따른 군 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계과 추적과 가택 수색, 위증 강요 등 감압적인 짜맞추기식 수사로 공소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생각한다. 대법원이 고등군사법원의 판결문만을 보고 뇌물수수와 관련한 나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상관을 무고한 개인과 신자인 황 모 대령과 군 검찰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상관을 무고한 황 대령과 같은 장교가 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군의 전투력과 단결력을 파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분명히 시비비비를 가려 다시는 이런 군인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불법수사를 벌인 인검청 관계자에 대해서는 군내 사법정의 확립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계과 추적과 가택 수사 등을 통해 비리가 없다고 검증이 되었고 군보심의 문제가 98년 종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맹목적 지시에 의한 중인 회유 및 협박, 증거 조작 등 비합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취한

김태복 소장 승소와 군내 종교편향

군불자 사기 회복

“진급 위하여” 개종사례 빈번

“공평 군종정책 종단 관심을”

못한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실제로 군법당 건립을 위해 헌신해온 김태복 장군이 부하의 모함으로 기소되자 불자 장교들이 공식석상에서 ‘불자’임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하면 심지어 각 부대에서 진행되던 군법당 건립이 차질을 빚거나 중단되자까지 한 것은 김 소장 사건이 군불교에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이와 관련 총부예비역불자연합회 이만호 회장은 “그간 진급을 위해서는 불자임을 숨기거나 개종하는 사례까지 있었을 정도로 군내의 종교편향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최근 불교계의 지속적인 대응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인데, 군불교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종교편향이 완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 포교에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간간히 터져나오는 군내 종교편향적 사건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군포교 차원의 대책마련과 군법사 인가 및 수급문제 등 공평한 군종정책 촉구, 군법당 불사지원 등 종단차원의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지원한 파주군당사 주지 천 오스님은 “대법원 승소 판결을 계기로 군 포교를 담당하는 포교원에서는 군 포교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군승단, 군불교충신도회 등 군내의 불자들이 군포교를 위해 조직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군 불교 관계자들은 조계종이 김 소장 사건에 대한 복직 등 명예회복, 군 기강 및 군법집시 확립을 위해 관련자들에게 대한 조치를 촉구한 여세를 몰아 군 포교에 대한 근원적인 총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복 소장 사건 관련 일지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Event. Includes dates from 98년 8월 to 99년 4월 and corresponding events like '101여단장 재직시 참모장이었던 황 모 대령의 음모성 투서' and '대법원 원심판결 후 일부 승소판결'.

Advertisement for '삼정단' (Samjeongdan) medicine. Title: '현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나?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Text describes the benefits of the medicine for various ailments.

Advertisement for '리미티스' (Limitis) medicine. Title: '골다공증 관절염 리미티스'. Text describes the benefits for osteoporosis and arthritis.

Advertisement for Sunamsa Buddhist Academy. Title: '부산불교 포교지도자 아카데미 주·야간 학인모집'. Includes details about course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